2025.1.26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심판 받을 자
그리스도의 날에 복받을 남은 자
-복음으로 여는 스바냐-

스바냐 2:9, 고린도전서 1:8

정윤돈 목사님

*** 습2: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 고전1: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게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12가지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전무후무한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업과 후대를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편지에 보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재밌고 즐거울 때, 맛있을 때 행복하다. 그 행복이 다 호르몬의 작용이다. 설레고 사랑하고 좋아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온다. 마약과 같은 잘못된 중독은 거짓 행복이지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고 즐거워한다. 일을 해도 즐겁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지속할 수 있다. 제 가장 큰 행복은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저도 운동하러 가기는 싫지만 운동을 하고 오면 굉장히 보람차고 행복해진다. 운동하면서 어떤 동작이 안 될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행복하다.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걸 느낀다. 영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제자들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전도하면 운동할 때의 행복보다 더 행복하다. 전도와 선교를 알고 포럼하고 남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설교준비를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도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란다. 저는 전도해서 말 안 듣는 사람도 목사, 장로도 만들어봤다. 여러분도 하셔야 한다.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 수영을 잘 가르치는데, 수영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못 배운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전도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영접 한 명도 안하고 전도 한 번도 안하고 선교현장 한 군데도 안 가보면 복음을 머리로만 들었지 행복하지 않다. 말씀성취를 경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된다. 오늘 오후에 교사, 구역장교육을 한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데 복음으로 전도현장에서 실천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다. 오히려 미국으로 넘어간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렸다.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버려서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장로도 없고 신학도 약한 남침례교가 성경만 믿는다는 단순한 원리로 부흥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중심, 복음중심, 말씀중심, 현장중심, 제자중심이 될 때 한국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모압과 암몬이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고 하셨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왜 이 유대인들이 이토록 추악하고 더러운 지 하나님에게 질문한다. 하나님은 남은 자인 너 한 명이면 된다고 하신다. 그리고 너와 같은 남은 자를 찾아 세우라고 하신다. 이 남은 자들은 결국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었다. 즉 스바냐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였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왕족 출신이었다. 스바냐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 멸망받고 지옥가는 심판의 날이 된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징계와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과 사람들이 많다. 왜 강한 나라들이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겪고 주님께 목숨을 걸었는데 열 명의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다. 부흥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날을 기다리라고 하신다.

1.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받을 징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시대적인 배경과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이다. ①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 이후로 악한 왕들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나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들 므낫세 왕은 악하고, 손자는 더 악한 일을 하다가 암살당했다. 다음 요시야 왕도 죄를 가득 쌓았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지만 왕실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스바냐 1장 1절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② 백성들 또한 무속, 점술, 우상이 사회에 만연한 상태였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5절에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속, 점술, 우상이다. 뭇 별들에게 경배하며 별 점을 치는 사람들, 그마림과 바알 우상들, 여호와를 경배하며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종교혼합주의를 보여준다.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꼭 예수님만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믿음과 이성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만, 이성으로만 믿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의 의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인으로서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 루터는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은 은혜를 강조했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발전시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되었다.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으나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안다. 마약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한다. 이게 성령충만함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메마른 광야의 길로 가게 된다. ③ 당시 사회는 불법과 부정과 착취가 만연한 상태였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들을 정죄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스바냐에게 치유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스바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치유와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도 있다.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해야 하듯이 죄와 허물이 쌓이면 매를 맞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습이고 우리 모습도 그렇다. 지금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나중에 형통한 응답을 받겠지만 지금 매를 맞는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개인과 조상의 죄로 인함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부족하고 넘어지면 회개해야 한다. ①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경고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노아의 홍수심판을 상기시킨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재앙이 임한다. 우리도 전도하지 않고 분열되면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하시기 바란다.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만 정치활동하지 않았다. 바울도 나라가 속국이었지만 복음만 전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민주화도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② 두 번째로 스바냐서 1장 6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 스바냐 1장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석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다. 죽는 날까지 교회와 하나님과 형제와 가족을 배반하지 않기 바란다. 사회에 배신자들이 깔려있다. 우리가 빛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기당하고 배신당한다. ③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가진 건 다 공짜다. 물고기를 사먹을 때 지불하는 값은 단지 물고기를 건진 값이지 공기도, 고기도,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스바냐 본인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스바냐 1장 8절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같은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방백'은 고위관료,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방인의 옷, 명품을 입은 사람들을 멸절하신다고 한다. 좋은 옷과 좋은 시계, 좋은 목걸이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명품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다. 금, 은, 보석과 명품을 좋아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말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자기 직분과 응답에 따라 누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증거가 된다. 그렇기 위해 여러분에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업도 필요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리라고 하셨다. 우선순위만 잃지 않으면 된다. ④ 네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

(1) **첫 번째로 죄문제, 사탄문제,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스바냐 3장 15절에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지할 수 없다.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와 다르다. 복음 받으면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란다. 아무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 뭐가 잘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복한 것이다.

(2)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부모님이 부족한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쁘시다고 하셨다.

(3)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스바냐 3장 19절에는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4)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스바냐 3장 20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는다.

끝으로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을 하다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명성만 얻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바냐 말씀을 통해 알지도, 깨닫지도, 도저히 답을 얻지 못한 부분에 깨달음과 발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빛의 경제, 선교경제,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